

광주·전남 115명...청년창업자 모십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000명 모집
운영지역 5곳서 17곳으로 확대
최종선발 보조금 1억까지 지원

사업초기 계획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입교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0일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제9기 입교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전국 1000명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최대 규모다. 또 지난해 전국 5곳에서 운영되던 청년창

업사관학교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관학교 입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기존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권에만 담당하던 호남청년사관학교가 광주청년사관학교, 전남청년사관학교 등 2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각각 65명, 50명을 모집한다. 광주와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호남권 지역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비롯해 사무공간과 제품 제작과 관련한 장비

인프라, 교육 등 창업 초기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게 장점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코칭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체계적인 지원과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후 5년간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판로, 기술개발자금, 해외진출 지원, 투자유치 등의 후속연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이 70%에 이르는 등 일반창업자의 생존율 30%의 두배를 웃돌고 있다. 수료 후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생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확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2400여명의 청년 창업자를 배출했으며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매출액 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지역내 유망한 청년창업자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발돼 각자의 꿈과 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1코노미'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라!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저서 '트렌드코리아 2017'에서 '1인'과 이코노미(경제)를 조합해 '1코노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미치는 새로운 경제유형을 의미한다. 아마도 1인가구 시대를 경제적 시각에서 가장 잘 표현한 신조어가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 중 하나로 사회 구조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들의 니즈(NEEDS)와 소비의 움직임이 곧 1코노미다.

1인 소비자라 불리는 1코노미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코노미는 의면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흐름 중 하나로 인식받게 오래 되었고 기업들도 가정간편식(HMR)제품, 밀키트 제품 등 1코노미족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창업 시장에서도 1코노미족을 겨냥한 창업 아이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반찬 전문점이 있다. 집에서 혼밥을 하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국, 전골, 찌개, 반찬, 간식, 안주 등 다양한 1인 맞춤형 소포장 제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홀로 디지털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혼술족을 위한 1인 보쌈·삼겹살 도시락 메뉴도 나타나고 있다. 1코노미족을 겨냥한 창업아이템은 도시락, 김밥, 분식, 치킨 등 배달형 아이템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학생과 직장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도 무인화 시스템을 적용해 혼자서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1코노미족을 겨냥한 창업 아이템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용자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공간에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크거나 양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1인 맞춤형으로 만든다. 두번째는 가격 부담을 낮춰 구매자의 지출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다. 과거 생필품이나 식료품의 경우 1인 맞춤형 소포장 제품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1코노미족이 가격 부담으로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최근에는 1인 맞춤형으로 양을 줄이는 동시에 낮은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1코노미족의 소비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번째는 1코노미족을 더 이상 바쁠 때 찾아오면 반갑지 않은, 불편한 1인 고객이 아니라 주요 고객군으로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확장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가령 외식업체를 방문한 1인 고객은 4인 테이블에 앉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1-2인용 테이블을 우선 배치하고 3-4인 고객의 방문이 증가하면 테이블을 합치는 방식으로 좌석 문제를 해결한다. 제품 포장 단위도 1인용부터 다인용까지 여러 종류의 포장용기를 구비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수년 내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비자가 아닌 대표적인 고객군으로서 1코노미족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소비성향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변화와 차별화를 통해 1코노미족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노력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트렌드가 바뀌어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제때 적용하는 것도 예비창업자 자영업자의 경쟁력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동강대 창업지원단 청년창업가 멘토 역할 특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최종 성과 발표회

동강대가 청년 예비CEO들의 황금빛 창업을 이끄는 멘토 역할을 특색있게 하고 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8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최종 성과 발표회'는 대학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은 예비 CEO들의 시제품 등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동강대는 지난해 광주북구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Kick Off' 공모사업에 선정, 예비 청년 창업가 14명을 대상으로 창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창업 실현 가능성을 돕는 디딤돌 역

할을 해왔다. 청년 창업가들은 이날 ▲테라리움 ▲유리공예 ▲멀티부티숍 ▲팻택시 ▲RFID칩을 활용한 블루투스 기반 드론 비행로봇 시스템 ▲메쉬밴스 부착형 광고 디자인 상품 ▲웹툰 ▲복합문화공간 카페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강대 박경우 창업지원단장은 "올해에도 지자체와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최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동강대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청년 창업가들이 만든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도 선을 보였다.

창업기업 R&D 지원 역대 최대 3733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한도·기간 2배 늘려 기술과제 접수

올해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과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올해 창업R&D 지원에는 전년보다 933억원(33%) 늘어난 37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과 민간 주도로 지원 체계를 바꾸고, R&D 결과가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한편 선정 평가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먼저 민간 투자를 받거나 시장에서 기술이 먼저 검증된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1083억원(94%) 늘어난 2241억원을 지원한다. R&D 지원 한도와 기간도 기존의 '최대 1

년간 2억원 지원'에서 '최대 2년간 4억원 지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결과물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자금 지원, 후속 투자 유치, 판로 지원 등을 병행한다. R&D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기존의 일괄 대면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방문, 심층 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동원하기로 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카카오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http://pf.kakao.com/_llfqd)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식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제6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식'을 열고 기업인 27명의 동판을 헌정했다. 중기중앙회는 국가 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동판을 제작·전시하고 있다.

광주·전남벤처기업청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15일 오후 2시 북포벤처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

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지식산업센터 등이 지원하는 사업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숨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육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